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한반도에서의 활동 지역



동북 아시아에서의 한스 자이델 재단

한스 자이델 재단과 중국은 1980년부터 교육과 정치 분야에서 꾸준히 대화를 이어오고 있으며, 한스 자이델 재단은 중국 정부의 교육 개혁을 돕기 위한 직업연수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우리 재단의 사회, 교육 및 정치 분야에서의 자문 역할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국 서부 지역의 성(省)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5년부터 한스 자이델 재단은 몽골에서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제도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법 및 형법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우리 재단은 몽골 법무부와 내무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한스 자이델 재단은 1967년에 설립된 독일 정치 재단으로서 기독교 사회당(CSU)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평화 및 발전을 위한 봉사"를 모토로 독일 및 해외에서 민주시민교육(정치 교육)을 수행해 오고 있다. 개발협력분야에서 40년 활동해 온 한스 자이델 재단은 현재 전 세계 약 65개 국에서 100여 개의 프로젝트들을 수행 중이다.

한스 자이델 재단은 국제적 활동을 통해 기독교 및 사회적 가치에 입각하여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시장경제 체제의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지 프로젝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정치 자문과 교육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협력 파트너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재단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 사무소 연락처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 (Dr. Bernhard Seliger)
Tel.: +82-2-790-5344~5
Fax: +82-2-790-5346
E-mail: info@hss.or.kr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20길 13
수영빌딩 401호
04419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ss.or.kr



프로젝트 활동

“민주주의와 평화 및 발전을 위한 봉사”

한스 자이델 재단은 위의 모토를 바탕으로 전 세계 65여 개 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30년 이상 한반도에서의 화해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접경지역과 DMZ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특히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 편입과 협력을 통한 평화적인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목표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가 중점적으로 수행 중인 사업들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관련된 의제들에 관한 조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의 주요 프로젝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한반도의 평화 통일 촉진
- ▶ 독일 분단 및 통일 경험의 공유와 관련 시사점 논의
- ▶ 국제 환경 분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편입
-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협력과 교류
- ▶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젝트 대상 그룹

- ▶ 한국 접경지역 소재 지자체 및 유관 지역계획 담당기관들
- ▶ 관련 연구소 및 대학 소속 연구원들
- ▶ 행정부 및 의회 내 관료 및 정치인들
- ▶ 한반도의 화해 및 환경 분야 관련 시민단체들
- ▶ 북한의 정부 및 준 민간 기관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의 활동

독일 분단 및 통일 경험 공유

한반도를 위한 시사점 논의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들 중 한 곳에 속한다. 이에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한국에서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현지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함께 이들에게 정치, 경제 및 사회 분야 등에서의 독일 분단 및 통일 경험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국제 협력

황폐화되고 침식된 산비탈과 언덕들은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는 1990년대에 대기근을 겪었던 농촌 지역 주민들의 고난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 전체 산림의 약 40 퍼센트가 사라졌으며, 한국에서는 경제개발로 인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가 손상되었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이 국제적 환경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자신들의 산림 분야를 지속 가능성 원칙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자연보호 협력

습지 보호와 습기로운 활용

인간이 만든 국경은 자연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한반도로 날아오는 철새들이 한국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 지대를 넘나드는 풍경을 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더욱 실감한다. 세계화로 인해 많은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났으며, 심지어는 적대국들 간에도 교류가 시작되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고립된 채로 남아있다.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는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대표 인사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데 진력하고 있는 동시에 북한 지도층 인사들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북한 국내 및 해외에서의 연수 프로그램, 회의 및 환경 조사 실습 일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스 자이델 재단 국제협력원장 수잔네 루터 (Dr. Susanne Luther) 박사가 2016년에 한국을 방문하였다.